

# “당원 불법모집, 행정부시장이 지속적 요구했다”

### 광주시검 진술 확보...시 공무원·고교 동문 줄줄이 소환 조사 2018 광주시장 선거 때 당원명부 유출 개입 인물 관여 정황도 리스트만 8000명 유박...기소 여부·범위 등 조만간 결정키로

광주시 공무원들의 4·15 총선 관련 불법 당원모집 개입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감압에 못이겨 당원을 모집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웅섭 광주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다 민주당 당원명부 불법 유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H(57)씨가 이번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까지 확보했으며, 조만간 관련자의 기소 여부와 기소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일각에서 H씨가 정 부시장의 출마 예정지였던 동·남 지역구는 물론 광주의 나머지 3개구에서도 당원을 모집해 또 다른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돕거나 도우려 했다는 말도 흘러나오며 따라 관련 수사의 진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고 있다. 5일 광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지난해 9월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출마 예상자였던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위해 당원을 모집한 정황을 포착했다.

광주도시공사 간부의 사무실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집 자료가 발견됐는데, 1차 모집책만 100여 명에 이르고 이들이 모집한 남구에 주소를 둔 민주당원 리스트만 8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당원명부를 토대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관련자의 혐의를 확인했다.

당원명부 사건으로 광주시 공무원과 시 산하 직원 등 수십명의 공직자들이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 중 국장급 간부도 여러 명 포함됐다. 또 공직자는 아니지만 정 부시장의 고교 동문들도 상당수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정 부시장의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당원을 모집해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결재 등을 받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들어갈 때 마다 “좀 도와달라”며 당원 모집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게 해당 공무원들의 주요 진술이다.

이들은 검찰에서 “정 부시장에게 당원 가입자 명단을 가져갔더니, H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쪽으로 전화하라고 했다”며 “H씨에게 전화를 해 당원가입자 명단을 전달했고, 얼마 후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엑셀파일 등의 형태로 정리된 명단을 다시 주더라. 결국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뜻으로 느껴져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2018년 광주시장 선거 당시 이웅섭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민주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한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조사를 받은 공직자들의 입에서 H씨의 이름이 수차례 거론된 데다, 정 부시장과 H씨가 고교 동문이자 고향 선후배라고 알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불법 당원모집에 관련된 공무원 중 상당수가 정 부시장의 고교동문 또는 고향 출신들로 확인됨에 따라 조직적 모집 여부와 근황·전보·승진 인사 등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H씨의 아내가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이라는 점도 확인하고, 불·편법적 혜택이 있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H씨가 광주 5개 자치구 전반에 걸쳐 당원모집에 관여한 뒤, 정 부시장은 물론 또 다른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도왔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검찰수사와 관련해, 정 부시장측은 조직적이거나 강요에 의한 당원 모집 사례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민간공원 수사과정에서 나온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검찰이 개혁과제로 금지하기로 한

부적절한 별건(別件)수사가 아니냐는 주장 등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후)영장 발부 등 정식수사 절차를 모두 밟았다”며 부적절한 별건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중대 범죄행위가 적발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금지한 별건수사는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수사와 전혀 다른 수사를 새롭게 따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도 “편법적 별건수사는 검찰이 피의자의 주된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일단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는 수사관행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번 당원모집 사건처럼 (민간공원)수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확인돼 별도의 수사번호를 부여한 수사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수사다. 오히려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해남 야산서 불...0.5ha 태워

해남군 한 야산에서 불이나 산림 0.5ha를 태우고 4시간 여만에 진화됐다.

5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45분께 해남군 계곡면 성진리 무의마을 인근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산림 당국은 헬기 2대, 소방차 10여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소나무와 잣목 등 사유림 0.5ha를 태우고 오후 6시 4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전주동물원 아쿠아리움서 불 어류 12종 63마리 폐사

지난 4일 밤 9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주동물원 아쿠아리움에서 불이 나 인디언 나이프피쉬, 타이거펄피쉬 등 어류 12종 63마리가 폐사했다.

또 화기로 인해 8종 36마리가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철골조 아연판 지붕 1개 등 90㎡를 태워 15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동물원 관계자는 “불이 나자 전 직원이 투입돼 수족관에 산소를 투입하고 온도를 맞추는 등 노력했지만 수족관이 깨지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담당 직원은 이날 오후 폐장한 뒤 퇴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09년 설립된 아쿠아리움은 23개의 크고 작은 수족관을 갖췄고 어류 20여종 100여마리를 상시 전시해 왔다.

검찰은 아쿠아리움 뒤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동물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

### 출소하자마자 현금 절도행각

출소하자마자 보안인 허술하고 인적이 드문 종교시설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50대가 특수절도 혐의로 철창행.

5일 전북북부경찰청에 따르면 A(53)씨는 지난 1일과 2일 전북 익산의 한 교회와 원불교 교당에서 830여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달 16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출소 사흘만인 19일 수원의 한 교회에서 현금 75만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25일 전주의 한 교회에서도 20만원을 훔치는 등 절도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는데, A씨는 “생계비가 필요했다”며 선처를 호소.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

### 말다툼 끝 남편 살해 60대 여성 긴급체포

#### 상습 가정폭력 피해 주장

상습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60대 여성이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5일 남편을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A(여·61)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원룸에서 남편 B(55)씨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께 ‘밖에 나갔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욕실에서 넘어져 숨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B씨의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을 발견, 부인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 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의 폭력이 계속돼 힘이 들었다. 심지어 내 목에 칼을 들이 대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겨울 바다 20분 사투...생명 구한 ‘여수 의인’

#### 트럭 빠지자 곧바로 뛰어 들어 유리창 깨고 여성 2명 구조

여수에서 낚시배 선장이 항구 앞바다에 빠진 차량을 보고 뛰어 들어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했다. 자신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낚시배 선장은 “오직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바다에 몸을 던졌다”고 말했다.

5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께 여수시 소호동 소호항 앞바다 방파제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피해 후진을 하던 트럭이 바다에 빠졌다.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곧장 차에서 내린 김진은(48)씨는 포구 앞에 묶여 있던 바지선 위로 몸을 날렸고,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바다속으로 들어가고 있던 트럭의 앞 유리를 깨다. 이어 차가운 바닷물

로 뛰어든 김씨는 운전자 A(여·60)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여·63)씨를 구조했다. 김씨는 20여 분에 걸친 사투 끝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뒤 바지선 위에 그대로 쓰러졌다. 김씨에게 구조된 A씨와 B씨는 찰과상 하나 입지 않았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년 전 감직성 척추염을 진단받아 몸이 불편한 상태인 김씨는 “척추가 굳어가는 병을 앓고 있지만, 제가 아픈 것보다는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는 게 구해야겠다는 생각 밖에 안 들었다”며 “119에 신고할까 잠깐 망설임이 너무 늦을 것 같아 곧바로 바다로 뛰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염소 간 먹고, 나무에 깔려...전남서 노인 잇따라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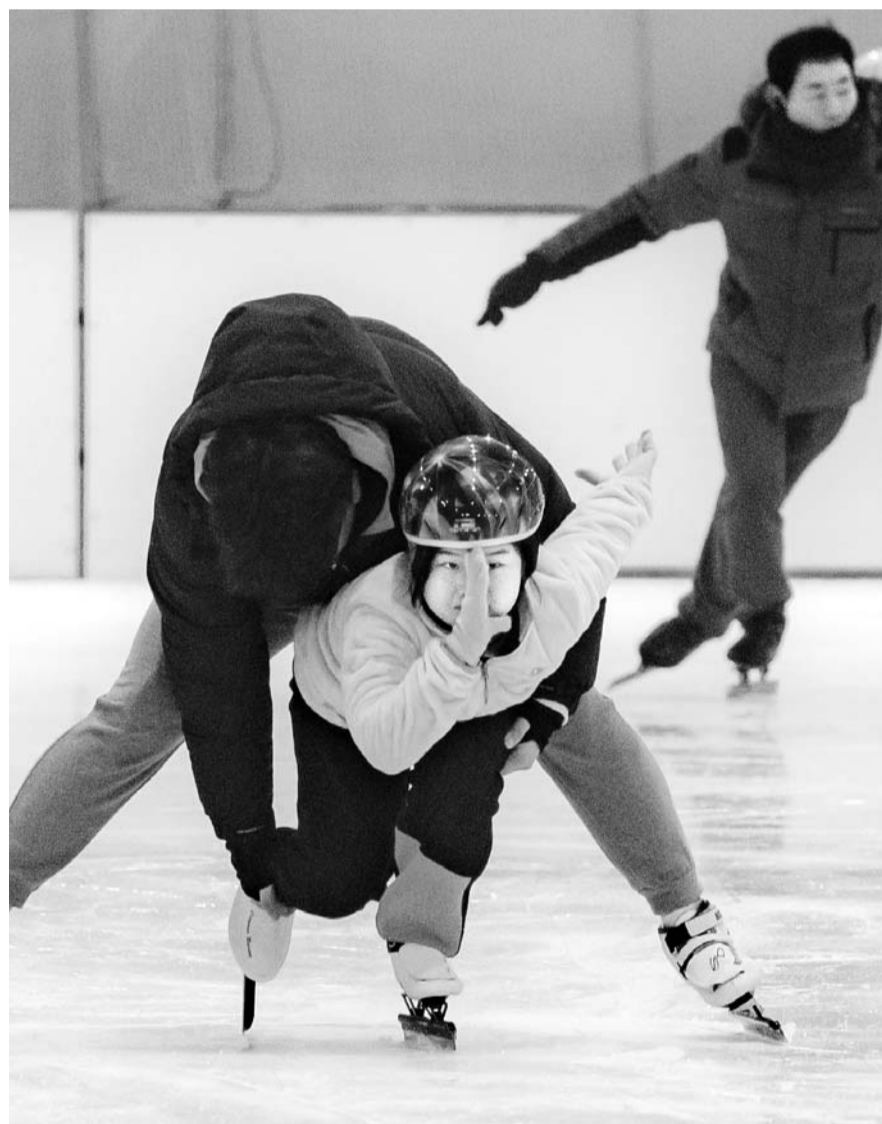
새해 첫 휴일인 5일 전남에서 70~80대 노인이 사망하는 불의의 사고가 잇따랐다.

5일 합평·화순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께 합평군 신광면 한 마을에서 A(80)씨가 염소 고기를 먹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 구조대로 접수됐다.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염소를 직접 잡아 염소 간을 먹은 뒤 쓰러졌다는 목격

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20분께는 화순군 도곡면 한 주택 뒤편 야산에서 B(70)씨가 나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얼굴과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야산에서 벌목하다 나무에 깔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빙상의 계절...스케이팅 배워오 5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주실내빙상장에서 한 어린이가 강사로부터 스케이팅 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815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알고계시나요?**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억~4억 원의 대출 금리 0.5% 감면
- 3~4억 원의 대출 금리를 0.5% 감면
- 5년 이상 조합원인 경우 대출 금리 0.5% 감면
- 지역별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지원

**평생 어부바 신협**

- 3~4억 원 등 고금리 대출을 0.5%로 대환해 드립니다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억~4억 원의 대출 금리 0.5% 감면
- 3~4억 원의 대출 금리를 0.5% 감면
- 5년 이상 조합원인 경우 대출 금리 0.5% 감면
- 지역별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지원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첨단지점 576-4150